

불자 세상보기



최승현 부산대학교수 조계종 사찰환경위원

산업화, 도시화는 기능과 효율을 강조하면서 우리 삶의 환경과 양식이 지구적으로 동질화되어 가고 있다. 특색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전통공간은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우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은 전통공간은 그리 많지 않다. 궁궐이나 일부 전통마을이 있지만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전통공간은 전통사찰이다. 전통사찰의 정체성은 도시화된 공간에서 자연적, 전통적 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옛정취와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멈춘 공간이라는 느낌이 강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숲의 종교라 불리는 불교는 보전의 영역의 보수성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일을 흔히 접한다. 그중에서 뜻하지 않은 변고를 우리는 재난이라고 부르는데, 그 분류가 천재(天災)이든 인재(人災)이든 재난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들의 몫으로 돌아온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우리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전조치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데, 전통사찰은 일상적인 방재조치를 적용하기에는 그 사찰의 역할이나 경관적 측면에서 많은 부담을 갖게 된다. 2005년 양양 낙산사 전소사건, 2012년 내장사 전소사건 등에서 보듯이 전통사찰을 위협하는 가장 큰 재해는 화재이다. 전통사찰은 화재가 발생하면 전각 등 구조물은 물론 각종 국가지정문화재도 더불어 잃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총무원에서는 산림청과 더불어 사찰 안전성확보라는 명목으로 전각 주변의 나무를 벌목하고 주변 임목 높이의 1.5배(통상 20-30m) 이상을 확보하며 지역 풍토에 적합한 내화수림대 조성을 검토한 바 있고 일부 사행한 바 있다. 이 대책에는 소방임도와 방화선 확보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다. 일련의 방재대책에 대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도 했지만 부작용도 발생했다. 방화선 확보를 위해 전각 주변 나무를 지나치게 벌목하거나 사찰 경관에 어울리지 않는 내화수림대 조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방재조치는 외부 화재 요인에 대한 대비이고, 실제로 화재발생 빈도는 전기누전이나 촛불 등으로 인한 내부 요인이 더 크다는 것이다(2006 주요사찰 방재대책 현황조사 보고서). 내부 요인을 막기 위한 방재대책은 매뉴얼 마련과 방재대비 훈련인데 이러한 부분도 시행되었고, 현재도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진하다는 평가이다. 특히, 방재대책 매뉴얼은 사찰의 여건에 관계없이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방재를 위한 연속성을 시스템적으로 갖고 있지 못하다. 결론적으로 외부요인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대응을 한 측면이 있고, 내부요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재

해방 교육 등의 관리가 부족하다. 향후 방화선 확보와 방화수림대 부본에 있어서는 전통사찰 고유의 경관을 해친 부분이 없지에 대해 재고가 필요하다. 전통사찰의 경관을 유지하면서 재난예방조치를 해야하는 것은 사찰이 안고 있는 숙명 과도 같은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최첨단의 정보기술을 이용한 재난 예찰기술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아울러 천차만별인 사찰환경에 대해 예측되는 재난 대응을 유형화하여 매뉴얼을 현실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이상의 모든 문제는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이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범정부적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무론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재해를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거나 혹은 재해가 발생해도 즉각적이고 합리적인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면 인재라고 평가한다. 전통사찰에서 발생하는 재난은 모든 것을 한 순간에 잃는 것이며, 손실이 결코 가볍지 않은 만큼 늘 예방하는 자세의 견지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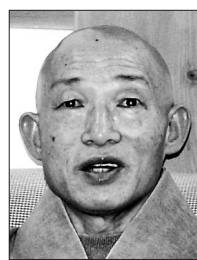
사찰 재난 대응 매뉴얼 필요 첨단 방재기술도 관심 가져야

중단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는 5월 18일 서울 불광사에서 총무원장 선출제도를 주제로 한 제2차 대중공사를 개최했다. 이날 대중공사는 총무원장 선출제도와 관련해 '참중권의 획기적인 확대'와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결의하고 막을 내렸다. 이날 직선제와 연화미소법 등 선거방식에 대한 대중공사에서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한다. <편집자주>

발언대 총무원장 선출제도

집행부와 중회는 대중의 뜻을 받아 충실히 제도를 만들고 어떻게 실현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미흡하고 폐해도 있었지만, 우리 승가 단위는 많아야 1만 5천 명이다. 종교인들이 그것 하나 제대로 못하겠다. 미흡하더라도 모범을 보이겠다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인간의 행위는 모두 정치와 연결되어 있다. 승단도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더 정치화해야 한다. 다만 어떻게 승가답게 할지를 고민하면 될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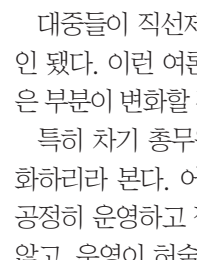
승가답게 선거해야 한다



홍선 스님 직지사주지

대중들이 직선제를 원하는 것이 이번 대중공사에서 확인됐다. 이런 여론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 만으로도 많은 부분이 변화할 것이다. 특히 차기 총무원장 당선 후 중무행정 큰 틀에서 변화하리라 본다. 어떠한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이를 정확, 공정히 운영하고 집행하는지가 중요하다. 의식이 바뀌지 않고, 운영이 허술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런 점에서 불자대중들의 의식을 높이는 작업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중무행정 큰 틀 변화할 것



법안 스님 불교사회연구소장

직접 경험한 지역대중공사에서는 다소 허술한 점이 많았다. 재미삼아 즉석투표를 한다고 하여 많은 대중들이 쉽게 생각하고 의사를 밝혔는데, 이처럼 종책 집행까지 강력히 주장하게 될 줄은 몰랐다. 즉석투표에서 설문문을 먼저 간선제와 직선제, 간선제 중 여러 방식, 직선제 중 연령 및 승급 제한 방식 등으로 나눠서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치밀하지 못한 과정 속에서의 결과를 전체 불자대중의 입장으로 확대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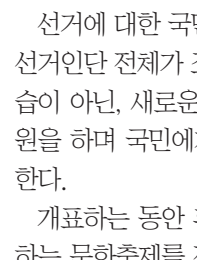
치밀한 과정은 아쉬움 남아



유지원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고려해야 한다. 투표일은 선거인단 전체가 조계사에 함께 모여 줄지어 투표하는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정근과 발원을 하며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야 한다. 개표하는 동안 후보자와 대중의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하는 문화축제를 진행하고 개표가 완료되면 대중 지지와 성원 속에 결과를 발표하는 등 선거 자체를 여법하게 진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선거, 국민 감동 축제가 되어야



정웅기 사부대중위원회 총괄처장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서혜원 편집인: 박혜월 인쇄인: 배성환 (우)03150 서울특별시 중로구 우정국로 45-13, 2층(수송동) 대표전화(02)2004-8200/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인사팀 연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연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팀 연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대구지사: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062)512-5003 영주지국: (054)634-3429 전 북 지 사: (063)910-8977 구독신청: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조계종 출가지도법사 제도 환영

조계종이 하반기부터 교구별 출가지도법사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는 소식이 다. 현재 교구본사 20여 곳에 인선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본사들도 인선을 조속히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교구별 출가지도법사는 비구 스님 1인, 비구니 스님 1인으로 위촉·구성된다. 이들 스님들은 자신의 교구본사에서 출가한 행자들을 지도하고 관리·상당의 역할을 맡는다. 출가지도법사 제도는 중도 퇴사율을 줄이기 위한 조계종의 자구책이다. 현재 행자 생활 중 사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환속하는 인원은 약 20% 정도다. 출가 수행자가 되기 위해 발심했지만 이상과 현실, 낙후된 환경과 교육 등에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원은 지난 1월 26일 열린 제4차 교구본사주지협의회에서 출가

지도법사 제도를 보고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당시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출가지도법사 제도에 공감하고 사업 진행에 공동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출가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가 발심을 한 사람들이 부적응을 이유로 환속하는 것은 줄일 필요가 있다. 현재 사찰 교무와 원주 스님이 행자들을 관리하지만, 시대가 많이 바뀐 만큼 젊은 세대에 맞는 행자 교육 및 생활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출가지도법사는 행자들의 고민을 상담하고 낯선 사찰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출가지도법사들이 한데 모이는 5월 31일 첫 워크숍에서도 상담 기술과 같은 전문 강의도 이뤄진다고 한다. 출가지도법사들의 활동으로 행자 중도 퇴사율이 줄어들길 바란다.

인증제품이 사찰을 지킨다

국민안전처가 사상 처음으로 불교계 LED연등 사용실태를 조사한 '2016 사찰 안전점검'에서 사찰 55곳이 미인증 LED 연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4월 11일부터 5월 4일까지 209개 사찰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다. 최근 불교계에서는 LED제품의 사용이 늘고 있다. 이번 부처님오신날만 하더라도 불초위원회가 거리연등 1만개를 LED연등으로 교체했으며, 서울지역 사찰들도 약 1만여개를 교체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문제는 LED제품의 보급과 함께 화재에 취약한 미인증LED제품의 사용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미인증LED제품 중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미인증LED연등이다. 의정부소방서가 지난 3월 발표한 '전통사찰 LED연등 착화 개연성 실험사

례'를 보면 그 위험성이 극명히 드러난다. 실험에서 미인증LED연등에 정상 전압인 220v보다 10%높은 240v를 공급할 시 1시간이 되지 않아 불꽃이 일었다고 한다. 미인증LED연등에는 과전압 보호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계종은 4월부터 계도에 나서 일선사찰이 인증LED연등으로 교체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문제는 군소종단이다. 지난해 11월 LED연등이 발화점이 돼 발생한 사찰화재도 군소종단의 사찰에서 발생했다. 전통사찰이 아닌 경우에는 방재시설 또한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자칫 산불 등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 인증LED연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범종단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사찰의 인증LED연등 사용에 대한 지원에도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천도의 중요성" "생전에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책자 안내 1 생전에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2 생전에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3 생전에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1개월 60팩 80mlx60팩 (IBOX)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입니다. 제품문의 : 02)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